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 자보업계, 회사 간 차량사고 정보 공유 움직임 활발

- 최근 중국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은 자사 보험가입자의 차량사고 기록을 공개하는 한편, 회사 간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.
 - 다수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사고가 나면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, 보험회사 교체시 사고 기록이 삭제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최근부터 보험가입자의 사고 및 보험금 수령 기록을 공개하고 회사 간 관련 정보 공유를 실시하고 있음.
 -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가입 의뢰자의 차량사고 및 보험금 지급 기록이 확인 가능해 짐으로써 보험회사를 교체하면 직전년도 사고기록이 삭제되어 보험료 인상을 모면할 수 있었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.
- 이번 보험회사들의 차량사고 정보 공개 및 회사 간 공유 조치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감소와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 - 최근 2년간의 보험금 수령기록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계약심사 담당자들은 보험가입 의뢰자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게 됨.
 - 직전연도에 보험금 수령 건수가 2회 이하이면 정상 보험료로 가입되지만, 3회가 되면 10%, 4회와 5회는 각각 20%와 30%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보험금 수령 기록 열람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것으로 예상됨.
 - 이번 보험회사들의 사고정보 공개 및 공유 조치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감소되고, 아울러 보험료 인상 효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음.

(현대캐보 6/24)